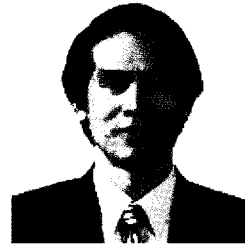


# ‘증도가자(證道歌字)’에 대한 서법적(書法的) · 각자기법적(刻字技法的) 부정(否定)



중원대 연구교수 이상주

## 남권희 교수의 ‘증도가자(證道歌字)’ 대한 1차 반론

“직지<直指 1377년>보다 100여년 앞선 고려시대 금속활자 12개 있다”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중앙일보 사회 18면의 기사제목이다.

대구 송의호기자와 서울 이경희기자가 공동으로 취재했다. 이날 주요 일간신문에 경북대 남권희 교수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주장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공식적 학술적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남교수가 주장을 편 지 6일째 되는 9월 7일 화요일 충청일보에, 필자가 반론의 글을 실었다. 이것이 공식적 학술적 문서기록상으로 학계 최초의 반론이 되어 언론과 학계 등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본래 월요일 게재하려했는데 분량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여 하루 늦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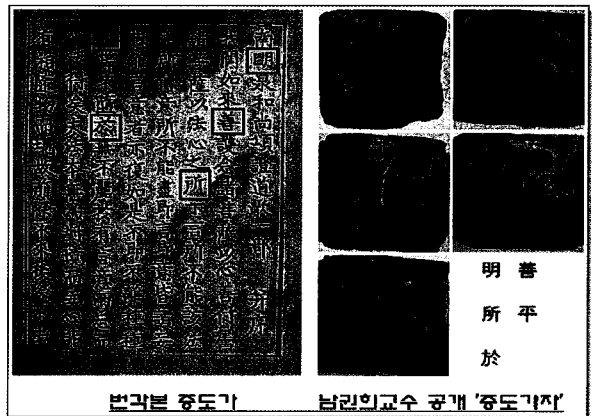
다음은 남권희교수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중앙일보의 기사이다. “금속활자 50여 점을 4년 여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명(明)’ ‘어(於)’ ‘평(平)’ 등 12점이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보물 758호, 이하 증도가))의 글자와 서체·크기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13세기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보듯이 남권희교수는 번각본(飜刻本) <증도가>와 <증도가자>의 서체와 크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 공개한 금속활자가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필자는 번각본<증도가>의 글자와 남교수가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한 고려금속활자 즉 <증도가자(證道歌字)>라고 하는 활자의 서법(書法)을 대조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 ◎ <증도가자>의 서법적(書法的) · 각자기법적(刻字技法的) 분석

필자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인 운필법(運筆法) 즉 서법(書法)을 중심으로 논하겠다, 이 점 하나만 가지고도 남교수가 주장하는 <증도가자>가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다만 중앙일보에 사진으로 게재된 4개의 글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견해를 제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다음 책을 참고했다.

남권희, <직지보다 앞선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 다보성, 2010. 9. 2.



1. ‘명(明=[囧+月])’자를 보자.  
1-1). 번각본<증도가>에는 ‘명(明)’ 중의 ‘월(月)’의 ‘별(J)’이 아래 끝부분과 ‘日’의 오른쪽 세로 획인

‘곤(1)’ 획 아래 끝부분이 맞닿아 있다.

- 1-2).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는 ‘월(月)’의 ‘별(J)’이 ‘일(日)’의 오른쪽 세로 획인 ‘곤(1)’ 획 아래 끝부분이 맞닿아 있지 않고 ‘경(𠄎)’의 아래로 뻗어 있다. 또한 획과 획과 사이의 간격 즉 획간(劃間)에 대해 살펴보자. 명[𠄎+月]과 ‘월(月)’의 ‘별(J)’의 간격도 ‘경(𠄎)’의 세로 길이의 ‘2분의 1’ 정도 떨어져 있다.
- 2-1). 번각본<증도가>에서 ‘월(月)’의 ‘꺠(J)’ 하단 같고리도 길이가 길게 안으로 올라갔다.
- 2-2).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는 ‘월(月)’의 ‘꺠(J)’ 하단 같고리도 길이가 짧게 끝났다.
- 3-1). 번각본<증도가>에서 ‘경(𠄎)’의 윗부분 ‘망(□)’ 왼쪽 ‘별(J)’과 오른쪽 ‘ㄷ’이 둥근 원형이다.
- 3-2).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는 ‘경(𠄎)’의 ‘망(□)’의 왼쪽 ‘별(J)’과 오른쪽 ‘ㄷ’이 거의 직각에 가깝다.

따라서 번각본<증도가>나 고려활자 <증도가자>도 ‘명(明)’이라는 글자를 쓴 것은 사실이나 서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없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도 금방 그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

### 2. ‘선(善)’을 살펴보자.

- 1-1). 번각본 <증도가>에는 ‘양(羊)’의 위의 두 획은 ‘v’자 모양으로 썼다.
  - 1-2).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는 ‘八’모양과 비슷하게 운필했다.
- 두 글자의 서법이 전혀 다르다.
- 2-1). 번각본 <증도가>에는 ‘선(善)’중 4개의 ‘일(一)’을 쓸 때 붓을 역입(逆入)하고 은봉(隱鋒)하여 운필했다.
  - 2-2).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는 ‘선(善)’중 4개의 ‘일(一)’을 역입하지 않고 은봉도 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서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도가>를 인쇄한 고려금속 활자로 볼 수 없다.

### 3. ‘소(所)’를 살펴보자.

- 1-1). 번각본<증도가>에는 ‘소(所)’중에 ‘호(戶)’의 ‘별(J)’을 ‘40도’ 각도로 왼쪽으로 길게 빼쳐 썼다. ‘소(所)’중에 ‘근(斤)’의 ‘별(J)’도 ‘45도’ 각도로 왼쪽으로 길게 빼쳐 썼다.
- 1-2).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에는 ‘소(所)’중에 ‘호

(戶)’의 ‘별(J)’이 수직에 가깝게 끝이 짧다. ‘소(所)’중에 ‘근(斤)’의 ‘별(J)’도 수직에 가까우며 끝을 뭉툭하게 마무리했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운필법이 차이가 난다

### 4. ‘평(平)’을 살펴보자.

- 1-1). 번각본(飜刻本) <증도가>에는 ‘평(平)’의 ‘이(二)’의 왼쪽에 찍는 ‘ㄴ’과 오른쪽에 찍는 ‘□’ 부드럽게 운필했다.
  - 1-2).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字)’에는 ‘평(平)’의 ‘이(二)’의 왼쪽에 찍는 점이 ‘ㄴ’의 모양에 가깝고 오른쪽에 찍는 점은 ‘□’모양에 가깝게 썼다.
- ‘평(平)’ 역시 서법이 다르다.

남교수는 “발견된 활자들 중 ‘明’자 등은 요즘 쓰지 않는 고자(古字)로 <증도가>와 일일이 대조했더니 서체는 물론 크기와 획의 빠침 등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며 “글자의 획 사이에 먹과 흙이 묻어있었고, 일부 획이 떨어지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오랜 기간 매몰됐다가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남교수의 연구실에서 몇몇 활자를 본 한국학 중앙연구원 옥영정(서지학)교수는 “명자 중 왼쪽의 ‘日’부분은 고려시대엔 ‘田’자 비슷한 모양이었고 조선초기에 ‘日’자로, 중기엔 ‘日’로 변했다”며 “활자에 새겨진 글자 크기·모양이 증도가의 서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활자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말 활자 10여 개를 본 청주대 김성수(서지학)교수는 “고려 활자로 확인하는 근거는 증도가와 서체가 똑 같아보였다는 것”이라며 “녹이 쓴 상태로 볼 때 적당히 땅에 묻어 두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제작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번각본은 이미 만들어진 책을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새겨 찍어낸 책을 말한다. 따라서 원본과 글자의 서법이 같다. 새기는 사람이 글자의 획의 크기와 획의 방향 등을 원본과 다르게 새길 수가 없다.

###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번각본 <증도가>와 남권희교수가 고려 금속활자로 찍은 <증도가>의 활자 즉 <증도가자>는 글자를 써나가는 방법 즉 운필법이 전혀 다르다. 이렇듯 서법만으로도 번각본 <증도가>의 글자는, 고려 금속활자인쇄본 <증도

가>를 번각하여 찍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 명증된다. 따라서 남권희교수가 <증도가>를 찍은 13세기 고려시대 금속활자라고 주장하는 금속활자는 <증도가>를 인쇄한 실물이 아니다.

문화재 위조범은 ‘짜퉁도사’이다. 가짜라는 사실이 단번에 들통 날 정도로 위조변조하지 않는다. ‘태사사신(太詐似信)’의 수준이다. 그러나 박학다식하여 고도의 식견을 구비한 노련한 고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박학다식해야 추리응용력이 향상되고 박학다식해야 고도의 식견이 확립된다. 고도의 식견이 고도의 학문과 고도의 인생을 보장한다.

실제 <증도가>를 인쇄한 고려금속활자가 발견된다하더라도 그 활자로 인쇄한 인쇄장소가 분명한 인쇄본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청주 흥덕사와 직지의 위상은 절대 불변이다.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충청일보에 위의 내용을 요약해 게재했다.

### 남권희 교수의 ‘증도가자(證道歌字)’ 대한 2차 반론

9월 14일 ‘다보성’에서 남권희 교수는 특강을 했다. 거기서 남교수는 나중에 목판활자를 새길 때는 획이 거칠고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각수(刻手)에 따라 글자체가 아예 달라지기도 해 금속활자본 <증도가>와 번각목판본 <증도가>의 글자체가 완벽하게 포개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는 <증도가자>와 번각본 <증도가>의 글자의 서체가 같기 때문에, 고려금속활자라 주장한 처음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 된다.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을 제작할 때 과정을 연상하여 비교해 보면 그의 논리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남교수는 “글자가 더 굵고 각이 거친 것은 번각본의 특성입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자료집에 ‘명(明+月)’자를 살펴보면, 글자가 더 굵고 각이 거친 것은 번각본의 글자가 아니라 <증도가자> 활자이다. 오히려 번각목판본 <증도가> 글자중 ‘명(明+月)’에서 ‘월(月)’의 ‘별(丿)’은 획이 가늘고 획끝이 칼끝처럼 매우 뾰족하다.

남교수는 “목판은 나무의 수분이 마르면서 크기가 많게는 1.5cm까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번각본을 연구할 때 원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판에 글자를 새길 때 마른 나무를 사용하지 생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1.5cm 줄어든다고 했는데, 종이를 얹어놓고 먹물을 묻힌 탁포로 칠 때 나무조직에 먹물이 스며들고 한지에 먹물이 배어 들어, 나무에 새겨진 글자보다 종이에 찍어낸 글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렵지만 실제 조금이라도 더 커진다.

남교수가 공개한 <증도가자>의 평균 크기는 세로가 1,10mm를 넘는다. 번각본 <증도가>라는 책은 1줄이 15자이다. 그가 반박한 대로 목판은 나무의 수분이 마르면서 크기

가 많게는 1.5cm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1.5\text{cm} \div 15\text{자} = 0.1\text{cm}$  즉 한 글자 당 1mm가 줄어든다. 그런데 ‘명(明+月)’중에 ‘경(景)’의 오른쪽 세로 획인 ‘곤(丨)’ 획과 ‘월(月)’의 ‘별(丿)’ 획의 간격은 ‘일(日)’의 세로 길이의 2분의 1(1/2)정도 즉 약 5.5mm이다. 길이가 4mm 차이가 난다. 이점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자의 반론에 대한 남교수의 반론은, 남교수가 9월 2일 목요일 직지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증도가자>라는 소책자에서 <증도가자>가 번각목판본 ‘증도가’의 서체와 같기 때문에 증도가를 인쇄한 고려금속활자라 주장한 최초 논리와 위배된다. 즉 자기가 처음 주장했던 논증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가 된다. 이렇듯 필자의 반론에 대한 남교수의 반론은 자가당착에 이르게 되었다. 즉 판단의 오류를 자인하는 격이 된 것이다.

- 충청일보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게재

### 남권희 교수의 <증도가자>에 대한 3차 반론

첫째, 남권희 교수측은 <증도가자>를 인쇄할 때, “명(明)자의 경우 모두 5가지 금속활자로 인쇄했다”고 한다. 남권희 교수가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제공한 소책자에, 번각본 <증도가>에서 28자의 ‘명’자를 찾아 제시했는데, 그 중 <증도가자>와 같은 글자는 하나도 없다. 그가 소책자에 제시한 “번각본 <증도가자> 중 명(明)자의 삐침이 거의 실물 활자처럼 일(日)의 중앙부까지 나갔다”고 한다. 이 글자들도 ‘일(日)’의 고자 ‘경(景)’의 윗부분 ‘망(口)’의 가로 ‘삐침’과 오른쪽 ‘삐침’이 ‘곡선’이다. 그런데 남교수가 제시한 <증도가자> ‘날 일’의 ‘고자’는 직각이다. ‘경(景)’에서 ‘직각’과 ‘곡선’의 차이가 ‘증도가자’가 가짜라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둘째, 필자가 <증도가자> 명(明)에서 월(月)의 삐침이 굵고 몽푹한데, 번각본 <증도가자>는 칼끝처럼 뾰족하여 서로 다른 글자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남권희교수측은 “금속활자 명(明)자의 월(月)의 삐침의 끝부분 뾰족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필자가 볼 때 뾰족해도 <증도가자> ‘월(月)’의 삐침의 길이보다 짧아서 ‘날 일’자를 세로로 2등분한 수직선과 맞닿지 않는다. 또 <증도가자>는 ‘날 일’을 가로로 2등분한 길이만큼 ‘날 일’ 아래 ‘한 일’ 획과 ‘달 월’ 삐침 획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 이렇듯 ‘증도가자’가 가짜라는 움직일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명’자에서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이다.

셋째, <증도가자>와 번각본 <증도가>의 ‘선(善)’자에서 ‘양(羊)’의 위의 두 획은 ‘여덟 팔(八=八)’도 똑같지 않다.

또한 '증도가자' '선(善)' 중 4개의 '한 일(一)' 을 시작하는 첫부분을 역입(逆入)하지 않고 노봉(露鋒)했다. 번각본 <증도가>는 '선(善)' 중 4개의 '한 일(一)' 을 쓸 때 붓을 역입(逆入)하고 은봉(隱鋒)했다.

넷째, <증도가자>의 '아들 자(子)'는 'フ' 획 꺾이는 부분과 '일(一)'의 오른쪽 끝나는 부분의 각도가 45%이다. 또 '갈고리 꺾(丿)'이 시작하는 윗부분이 '일(一)'자와 붙어 있지 않다.

다섯째, <증조가자> 크기는 약 15mm정도인데 700년 가까이 땅에 묻혀있었다. 70년에 1.5mm 가량 부식이 됐어도 부식정도가 심각할 것이다.

'명(明)'자 '삐침' 아래 부분이 부식되어 떨어져 나갔으나 나머지는 그대로다. 그가 공개한 '12' 개의 '증도가자'는 글자 일부가 부식되어 떨어져나갔으나, 글자 나머지 부분은 금방 주조한 것처럼 생생하다. '명(明)'자는 여백에 붉은 흙이 끼어 있는데, 다른 활자는 흙이 거의 묻어 있지 않다.

여섯째, '증도가자' '불(不)'의 높이는 7.15mm, '어(於)'의 높이는 1.74~2.61mm이다.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는 활자를 '활자판'에 배열하여 인쇄할 수 없다.

일곱 째, <증도가자>로 인쇄한 번각본 <증도가자>라고 책자에 제시한 205자 중에 같은 글자는 하나도 없다.

필자가 위에서 고찰 증명한 글자만 보아도 <증도가자>와 번각본 <증도가자>는 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다. 이 점과 위에 든 몇 가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증도가자>는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가짜다.

- 충청일보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게재

### 남권희 교수의 <증도가자> 대한 4차 반론

#### - <증도가자>에 대해 남권희교수께 해명을 요청함 -

남권희교수는 11월 19일 금요일 청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서지학회' 학술발표대회장에서도 고려 금속활자 몇 점을 공개했다. 11월 5일 금요일 청주인쇄박물관에서 개최한 '한국서지학회' 학술발표대회장에서도 그는 증도가자가 진짜라는 주장을 폈다. 필자는 그날 남교수에게 몇 가지를 해명을 요구했다. 필자는 "번각본은 글자가 같아야 한다. 28명의 각수가 새겨 글자가 다르더라도 그중 <증도가자>와 같은 글자 1자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교수는 "번각본은 한 글자라도 같으면 번각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 공식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종료시키는 바람에 해명을 듣지 못했다. 필자는 남교수가 번각본 <증도가자>글자가 '증도가자'와 같다는 주장을 부정해왔다. 이에 필자는 남권희교수가 몇 가지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11월 5일 금요일 구두로 요

청했던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문서상으로 제기하는 네 번째 반박성 내용이다.

첫째,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언론에 "금속활자 50여 점을 4년여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명(明)' '어(於)' '평(平)', '선(善)', '보(菩)' 등 12점이 <남명천화상증도가>의 서체 크기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되었다. 나머지 활자는 어느 시대 활자인가?

둘째, <증도가자>와 번각본 <증도가자>의 '명(明)'자 '선(善)'자의 서체가 육안으로 보거나 서로 겹쳐보아도 다른 것이 분명한데, 서체가 같아 보이는가?

셋째, 남교수는 '한국서지학회'이라는 회장 직인이나 '남권희'라는 사인을 번각해서 복각했을 글자 모양이 <증도가> 글자와 <증도가자>라고 주장하는 글자가 서로 다르듯이 서로 다른가?

넷째, 남교수가 작성한 원고를 인쇄사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편집하는가? 남교수가 박사학위논문을 지도했을 때, 제자들중에 남교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 최이가 주도한 번각본인데 글자를 새기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다르게 새길 수 있다고 보는가? '명(明)'자와 '선(善)'자만 보더라도 서로 다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섯 째, '명(明)'자에는 붉은 흙이 묻은 듯한데, 나머지 활자는 흙도 거의 묻지 않고 먹물이 진하게 묻어있어 거무스름하다. 같은 장소에서 출토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 째, 붓으로 글씨를 쓸 때 직각의 획 보다는 곡선의 획을 쓰기가 용이하다. 글자를 새길 때는 곡선보다 각이 지게 새기는 편이 용이하다. <증도가자>는 획이 직각이고 번각본 <증도가자>는 획이 곡선이다. 획의 굵기가 2mm도 안되는데, 쉽게 새길 수 있는 각이 진 획을 각수(刻手)가 힘들게 곡선으로 새기겠는가?

일곱 째,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고인쇄박물관에서 "번각본은 한글자라도 같으면 번각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교수는 번각본 <증도가>에서 <증도가자>로 찍었다는 글자 28자를 제시했다. 28명의 각수가 새겨 글자가 다르더라도 28자 중 제시한 <증도가자>와 1자는 같은 글자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필자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

여덟 째, '명(明)' '선(善)' '어(於)' 등 번각본 <증도가>에서 '증도가'로 찍었다고 추려낸 205자 중 <증도가자>와 같은 글자가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

- 충청일보 2010년 11월 29일 월 게재